공모지원 선정 이유 및 사유서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국내 창작 오페라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은 그간의 오페라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배출된 기존 우수작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공연화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는 ①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②공연작품의 예술성(40%), ③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2건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심사를 통해 심충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수정·보완계획, 수정가능성 등을 주목하여 보았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은 소극장 작품으로는 하트 뮤직의 <고집불통 옹>을, 대극장 작품으로 자인오페라앙상블의 <쉰 살의 남자>를 선정하였다. <고집불통 옹>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대중적 작품으로, 고전 문학을 소재로 삼아 흥미롭게 풀어내었다. 작품을 소극장으로 재편성하여 소극장 공연, 지방 공연 등을 통해 관객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설득력이 있었다. 다양한 음악어법을 통해 해학과 풍자, 감동을 담은 소극장용 창작 오페라로 재탄생할 것이 기대된다. <쉰 살의 남자>는 문학적, 음악적으로 예술성이 풍부한 작품으로 다양한 연 령층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현대 오페라로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